

서정원의
불교미학산책

⑮ 정각원 불단(상단) 1

출세간의 영원함 상징하는 자리

우리는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정각원의 돌계단을 올라 하단(영가단)과 중단(신중단)을 거쳐, 부처님이 자리하신 상단에 이르게 되었다. 정각원 상단의 본불은 중품중생인을 맺으신 아미타 부처님이시며, 따로 좌우 보처를 두고 계시지는 않다. 그 뒤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설법을 하시는 영산회상도가 양각 형태로 모셔져 있다. 아래의 수미단은 넓고 평탄하며 위로는 닷집이 높게 올라간, 한 마디로 멋진 부처님이시다. 그런데 부처님에 앞서 묘한 생각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 바로 수미단이다. 오늘 이 수미단 앞에서 사색을 이어가 보고자 한다.



현재 동국대학교 정각원. 사진 출처=서울연구데이터베이스

동국대학교 정각원은 그 자체로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 사색할 수미단의 자리와도 관련이 있으니, 먼저 그 부분을 설명하고자 한다.

동국대 서울캠퍼스의 가장자리, 정문에 면해 정면을 드러낸 채 앉아 있는 정각원 전각은 지금은 부처님이 자리하신 법당이지만 본래 왕의 공간이었다. 조선의 궁궐, 그중 경희궁의 정전 숭정전이 바로 정각원의 전생이었다. 정전이란 궁궐 건물들 가운데서도 가장 위계 높은 전각을 뜻하는 말이다. 경복궁의 근정전, 창덕궁의 인정전, 창경궁의 명정전에 대응되는 왕의 자리가 곧 숭정전이었다.

지금 우리가 캠퍼스에서 보는 정각원의 외형은 그 시절의 흔적을 비교적 온전히 보존하고 있다. 정면 다섯 칸, 측면 네 칸의 팔작지붕, 기둥은 모두 원형이고, 천장은 화려한 우물반자 구조다. 특히 중앙에 그려진 칠조룡 문양, 청룡과 황룡이 여의주를 희롱하는 형상은 왕실 권위를 상징하는 도상이자, 보는 이의 시선을 멈추게 한다. 평민은 감히 마주할 수 없었던 이 문양이 지금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시대는 바뀌었고, 권위는 문양만 남긴 채 자취를 감췄다.

경희궁 숭정전은 오늘날 남산자락의 동국대에 오기까지 오랜 시간을 떠돌았다. 1900년대 초, 경희궁이 일제에 의해 훼손되며 전각들은 흩어졌다. 숭정전은 예전 필동에 위치했던 일본사찰 조계사 경내로 옮겨졌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동국대의 만해광장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 해방 이후 혜화전문학교가 지금의 동국대 자리로 오면서 만해광장 쪽에 위치한 숭정전을 지금의 위치로 옮겼다고 한다.

지금 우리가 보는 정각원은 그렇게 네 번의 시대를 건너왔다. 경희궁에서 조계사로, 혜화동에서 다시 남산자락으로. 그리고 1977년, 마침내 '정각원'이라는 이름을 얻으며 불교의 전각으로 거듭났다. 궁궐의 정전이 법당이 된다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닌 듯하다. 권력과 정치의 공간이, 수행과 자비의 장소가 되는 전환은 이 건물이 품은 가장 큰 변모일 것이다. 그렇게 정각원은 오늘날 법회를 열고 예불을 봉행하며, 학생과 스님, 신도들이 함께 수행하는 공간이 되었다.

경희궁 정전인 숭정전이 거듭나
정각원은 그 자체로 하나의 경전
세간·출세간의 연속과 단절 보여

왕이 앉았던 자리에 지금은 수미단이 솟고 그 위에 아미타부처님이 앉아 있다. 말 그대로 지존의 자리인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조선 권력의 정점, 칠조룡이 여의주를 떠받들던 그 천장 아래, 지금은 향냄새와 염불 소리만이 맴돈다는 차이가 있다.

불교를 '해괴망측한 종교'라고 비판하며 〈불씨잡변〉을 썼던 조선의 설계자 정도전이 살아있다면 아마 이 광경 앞에서 까무러쳤을 것이다. 그는 공자를 앞세워 불교를 몰아냈고, 유학을 국가의 유일한 언어로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지키려 했던 유가법도 아래 아무런 세속 권력도 갖지 않은 부처님이 그 표정조차 초연하게 앉아 계신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제목의 책이 유행하는 오늘날 공자의 말은 이제 '공씨잡변'이 되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유교의 이미지는 고리타분하다 못해 가부장제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극단주의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반대로 불교의 가르침, 부처님의 말씀은 인생을 꿰뚫는 지혜와 힘든 삶을 보듬어 주는 자비의 언어로 알려져 있다. 근래 갓 스물을 넘긴 걸그룹의 멤버가 예능 토크쇼에 나와 불교책을 홍보하고, 그 책이 도서 순위 1위에 오르는 세상이다. 불교 굿즈를 자랑하는 SNS는 쉬지 않고 올라오고 있다. 조선은 졌다. 조용히, 확실하게. 그리고 부처님은 승리했다.

이 승리는 단순히 유교를 깔아뭉개고 싶어서 꺼내는 말이 아니다. 우리는 앞서 동국대 산책의 출발점에서 장충단 공원, 공자의 세계, 평지의 순탄한 길에서 혜화문으로 오르는 언덕, 부처님의 세계, 언덕의 가파른 길을 '선택'해야 함을 사색한 적이 있다. 권력에 순응하는 길은 얼마나 평탄하며 즐거운 평지의 길인가? 반대로 권력에 저항하여 옳은 것을 찾아 헤맨 길은 얼마나 가파르며 괴로운 언덕의 길일까? 500년의 기나긴 시간, 그것도 왕권과 국교를 선택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인내를 견뎌 온 불교도들의 괴로운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행지(行持)해야 하기에 꺼내는 말이다.

그렇기에 나는 이 정각원을 단지 종교적 기능으로 기억하고 싶지는 않다. 정각원을 볼 때마다 '진리'의 승리와 '신앙'의 숭고함이 내 안에 결정화되기 때문이다. 왕이 앉았던 자리에 이제는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 수미단은 세간의 덧없음과 출세간의 영원함을 상징하는 자리가 되어 있다.

정각원은 세간과 출세간의 연속과 단절을 보여 준다. 우리는 흔히 궁과 절을 서로 다른 세계라 여긴다. 지배와 해탈, 권력과 자비. 그러나 이 건물은 이 두 세계를 번갈아 수용하면서 최종적으로 출세간의 승리를 보여 준다. 정각원은 그 자체로 하나의 경전이다. 궁전이 법당이 되고, 권위가 수행이 되는 그 과정이 하나의 문장처럼 이어진다. 〈동국대 박사〉

선정 이루기 위해 해서는 안 될 일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㉚ 또 다른 무의행법(無依行法) 열 가지

본고(本考)에서는 또 다른 열 가지 무의행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선정을 이루려는 중요한 대목으로, 해서는 안 될 일에 집착하는 것 등을 논하고 있습니다.

대범천아, 무의행법(無依行法)에 또 열 가지 법이 있다. 선정을 닦는 이가 이 중에 한 가지만을 따르더라도 삼매를 이룰 수 없고, 설사 이루었더라도 곧 잃고 만다. 무엇이 열 가지인가?

① 사업을 즐겨 집착함
② 담론을 즐겨 집착함
③ 잠자기를 즐겨 집착함
④ (이익을) 구해 경영을 즐겨 집착함
⑤ 고운 빛깔을 즐겨 집착함
⑥ 아름다운 소리를 즐겨 집착함
⑦ 좋은 냄새를 즐겨 집착함
⑧ 좋은 맛을 즐겨 집착함
⑨ 연한 촉감을 즐겨 집착함
⑩ 심사(尋伺: 대충하는 것과 자세히 하는 마음 작용)를 즐겨 집착함

그때, 세존께서 '아야교진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허락하여, 아란야에서 선정을 닦는 비구에게는 최상의 방과 침구와 음식을 대어 주고 일체의 승사(교단의 사무)를 면제해 주리라. 왜냐하면 선정을 닦는 이로서 필수품이 모자라면, 나쁜 마음을 일으켜 삼매를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무간지옥에 떨어져 참기 어려운 큰 고통을 받기 때문이니라.

만일 선정을 닦는 이가 온갖 필수품을 다 갖추었으면, 이루지 못한 삼매도 이룰 수 있고, 이미 이룬 삼매도 끝내 잃지 않는다. 따라서 일체의 악법이나 나쁜 마음도 일으키지 않아 천상에 왕생하여 열반을 증득하느니라."

이러한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오욕칠정의 끈질김에서 떨어지기 어려움을 잘 아시고, 그것들의 고통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인 것으로, 이전의 십무의행보다 지금 것은 육근(六根)에의 집착을 경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선정을 닦는 이로서 삼매를 이루지 못했으면,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잠자지 않고 부지런히 정진하면서, 시끄러움을 멀리 떠나고 욕심을 줄여 만족할 줄 알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야 한다. 일체의 탐욕과 분노의 괴로움 … 질투, 거짓말 … 일체 세간의 오락, 방탕 등을 다 버려야 하느니라. … 이렇게 수행한 사람은 사천왕, 전륜왕등의 찬탄과 보시와 백 천 나유타의 공양을 받을 것이며, 아직 선정을 얻지 못한 자도 이러한 보시와 공양을 받을 것이다. 하물며 삼매를 얻은 사람이야 어떻겠느냐?" 그리고 세존께서는 다음 게송을 읊으셨습니다.

"선정을 닦으면 미혹을 잘 끊나니, 다른 업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네. 그러므로 선정을 닦는 이가 존귀하니, 지혜로운 이는 그에게 공양하라."

출가 공덕의 칭양(出家 功德의 稱揚), 이 부분은 출가하는 이의 공덕을 칭송하며, 비록 그가 계율을 깨트리더라도 열 가지 공덕이 있음을 주장하고, 〈지장십륜경〉의 중요한 관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 천장 대범천왕이 사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불법 안에서 출가한 이를 저 찰제리나 대신이나 재상 등이, 매로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꾸짖거나 사지를 찢거나 혹은 목숨을 끊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저 유정들이 내 법 안에서 출가하여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를 입었으면, 계율을 지키거나 깨트리거나 혹은 계율이 아주 없더라도 일체의 하늘, 사람, 아수라 등이 세속의 바른 법에 의한다 할지라도, 그를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꾸짖거나 사지를 찢거나 그 목숨을 끊지 못하느니라. 하물며 비법(非法)에 의해서이겠느냐."

"왜냐하면 계율을 지키고 법을 많이 들은[聞] 이는 제외하더라도, 나의 법 안에서 출가한 이로서 계율을 깨트리고 온갖 악법을 행하며, 속은 다 썩은 달팽이나 소라와 같으며, 사문이 아니면서 사문을 자칭하고 범행(梵行)이 아님에도 범행이라 자칭하며, 항상 번뇌 때문에 엎치락뒤치락하는 등 이런 계율을 깨트린 나쁜 비구라도, 일체의 하늘, 용, 야차, 건달바 … 인비인 등에게 무량한 공덕보배의 복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 말씀은 계율을 깨트리고 악행을 한 비구라도 하늘, 용, 야차, 건달바 … 인비인 등에게 무량한 공덕보배의 복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때리거나 목숨을 빼앗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출가한 공덕을 칭찬하심과 동시에, 썩은 달팽이와 같은 그러한 악한 비구라도 우황과 같이 귀하게 쓸 수 있는 말씀은 그만큼이나 '출가의 공덕'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편에는 계율을 깨트린 비구라도, 그 형상을 보는 일반 유정들은 열 가지 훌륭한 생각을 내어 무량한 공덕보배의 무더기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송림사 주지〉



사찰 편백나무 맞춤가구 전문점

스님 건강, '편백가구'로 지킨다

편백(히노끼)나무 효능

편백나무는 항균효과가 뛰어나 세균번식에
가장 취약한 목욕 욕조를 비롯하여
인테리어 용품, 주거용 목재, 침대 등 가구소재로 주로 사용된다.
특유의 향으로 인해 정신을 맑게 하는데 이는 피톤치드 때문이다.
편백나무는 일반나무보다 5.5배 가량 피톤치드가 많아
삼림욕을 하면 심신이 안정된다.

편백 온열 그래핀보료

신체 기(氣, Energy)를 충전하고 균형을 바로 잡는 초장파 에너지

건강하고 오래사는 것은 인류의 오랜 소망
지친 몸과 스트레스를 수면과 함께 깔끔하게 해결하세요.

- 피로 회복
- 근육 결림 해결
- 혈액 순환 개선
- 신경통, 근육통 완화
- 만성 피로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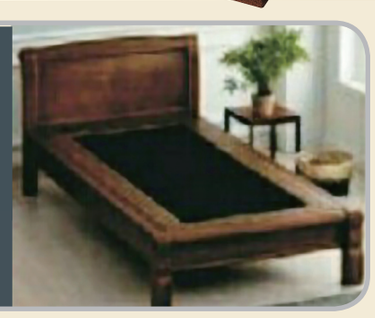


편백침대





숙면이 보약
편백 숯침대



FINE TERRA
love is fineterra
규조토 비누
'FINE TERRA'
절찬 판매
판촉용 대량구매시
70% 할인
향긋함과 함께~
기다려지는 세안~~~
알파토 규조토 soap
민감성 피부에 도움

그 린 에 너 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 4 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